역사속 과학인물

1643년 통신사로 渡日, 授時曆法 가르쳐

朝鮮朝의 천문학자

螺山 朴安期

朴 星 來 〈한국외대인문대학장/과학사〉

日서의 容螺山 기록

일본의 대표적 과학사 책의 하나인 길전(吉田光邦)의 「일본과학사」(日本科學史)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관영(寬永) 20년에는 조선의 용나산(容螺山)이 내조(來朝)했는데, 경도(京都) 사람 강야정현정(岡野井玄貞)은 그로부터 수시력법(授時曆法)을 공부했다. 수시력은 원(元)의 곽수경(郭守敬) 등이 세조(世祖)의 명을 받아 편찬한 것인데, 1281년부터 87년 동안 시행된 것으로 실제 관측을 중시하여 관측결과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1태양년을 365245일(日)로 정할 수 있게 된 아주 우수한 역(曆)이었다. 이 수시력을 연구하여 이에 바탕을 둔 새 역법을 만든 사람이 삽천춘해(澁川春海)였다. 그는 강야정현정으로부터 수시력법을 배운 후 1659년에는 이를 근거로 각지의 위도를 측정했다……」

이 책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 일이 있는데, 번역된 책에도 조선(朝鮮)의 용나산이란 인물이 일본 천문학자에게 역법을 가르쳤고, 그의 제자인 삽천춘해가 일본 천문학사에 빛나는 역법-정향력-을 만들었다고 그대로 옮겨져 있다.

내가 이 부분을 읽게 된 것은 10여년 전 세종때의 천문학에 대한 논문을 준비할 때였다. 용나산(容螺山)이라니 참 괴상한 이름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다른 책을 살펴보았다. 마침 가지고 있던 책 가운데 중산무(中山茂)교수의 「일본의 천문학」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48쪽에 적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43년 조선의 손님 나산(螺山)이란 인물이 강호(江戶)에 와서 역학에 관해 강야정현정과 토론했다는 말이 「춘해선생실기」(春海先生實記)에 보인다. 춘해는 바로 현정으로부터 역학을 공부했던 것이다. 나산이 어떤 내용을 전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에는 15세기 천문학의 최성기에 「칠정산」(七政算) 내편(內編)을 낸 바 있는데 이는 수시력 연구의 뛰어난 텍스트로 꼽히고 있다. 명말(明末)에는 중국의 역산학 전통이 어느 정도 쇠퇴한 다음이었으므로 당시 조선에서 역산학을 배우려던 태도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보인다."

앞의 책에는 「조선의 용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의 책에는 같은 인물을 「조선의 손님 나산」이라 밝혀 놓았다는 점이다.

나는 금방 그 잘못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1991년 4월부터 10달동안 일본에 가 있으면서 나는 여러 자료를 뒤져 1643년 일본에 갔던 조선의 학자는 용나산이 아니라 나산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일본인들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조선의객나산(朝鮮の客螺山)」을 「조선의용나산」으로 한 글자를 잘못 읽었고 그것이 여러 책에 잘못 옮겨졌던 것이다. 「객(客)」자는 「용(容)」자와 흡사한 데다가 한국사람은 대개 3자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

본명 朴安期 찾아내

그렇다면 일본 천문학사에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긴 조선의 나산이란 누구였던가? 조선시대에는 일본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곤 했었다. 임진왜란으로 잠깐 중단되었던 이 중요한 행사는 전쟁이 끝나자 바로 일본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다시 시작되어 1607년부터 1811년까지 모두 12회의 〈조선통신사〉가 거의 5백명씩의 대규모 사절단을 거느리고 일본을 방문했었다. 그 가운데 일부 기록이 「해행총재」(海行摠載)란 책으로 남아 있고, 이 책은 한글로 번역판도 나와 있다.

이 기록으로부터 나는 1643년 일본에 파견되었던 사신 일행가운데 나산이란 호를 가진 인물이 있었고, 그의 이름은 박안기(朴安期)임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몇 번 이 여행기에 등장할 뿐이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과학자 또

는 천문학자인지를 알 길은 전혀 없었다. 그 밖의 어느 한국사 책에서도 박안기라는 이름이 나오는 일은 없다. 그런데 일본의 과학사나 천문학사 책에는 모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다. 원래 삽천춘해의 「정향력」은 일본 역사에서는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역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이 역법을 말하다가 자연히 삽천춘해의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조선의 손님 나산」은 나오기 마련인 것이다.

일본 책에 자주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나산이지, 그의 이름 박안기는 아니다. 나는 일본 과학사 학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찾아 알려주는 정도로 만족하고 말았다. 앞으로 일본의 과학사 책에서도 그의 호 나산대신 그의 이름 박안기가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다가 뜻밖에 일본에 열달이나 살게 되면서 나는 박안기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태워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그는 1643(인조 21)년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선통신사 일행 4백62명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독축관(讀祝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말하자면 상당히 고위층 외교관이었다는 사실이다. 외교관이라지만 당시의 직책이 그랬다는 뜻일 뿐 당시에는 아직 전문 외교관이 있을 시절도 아니어서 박안기는 말하자면 고위층 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는 대마도와 구주(九州)지방을 거쳐 일본의 큰 섬들 사이에 있는 바다를 항해하여 대판(大阪)에 상륙했다가 다시 강을 거슬러 경도(京都)로 가고, 다시 육로를 따라 강호(江戶), 즉 지금의 동경으로 여행했다. 이 긴 여행기간동안 조선통신사 일행은 그야말로 일본인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그림이나 글씨도 써주고, 시와 글을 고쳐주며 또 학문적 질문에 대답도 해 주었고, 많은 선물도 교환했다. 극히 폐쇄적으로 살고 있던 당시 일본 지식인들에게는 유일한 밖으로 향한 창문인 조선 선비들과의 교류가 일생일대의 영광이며 좋은 공부의 기회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日여행중 詩도 남겨

일본에 있는 동안 나는 박안기가 지나간 발자취를 여러 가지 발견해 낼 수 있었다. 동경과 명고옥(名古屋) 사이에 있는 정강현(靜岡縣)의 청수시(淸水市)에 있는 청견사(淸見寺)에는 그의 시가 걸려 있는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이 절에 들러 그 절경을 노래한 글이다.

청견사는 해동(海東)의 경승지, 다시 찾으니 정은 더욱 깊어지네.

이미 속세를 뛰어 넘었으니, 어찌 한 조각 티끌인들 침입할 수 있을까.

깊은 계곡 물은 흘러 폭포 이루고, 기화요초 우거져 숲을 이루네.

수레를 문 밖에 세워둔 채, 객은 해가 이미 서산에 진 줄을 모르네.

이 절에 들러보니 뒷뜰에는 아마 박안기가 보았을 그때를 연상케 해 주는 아름다운 숲이 우거져 있었지만, 절 앞에는 기차길이 나고 바다가 툭 터진 전면은 살벌한 현대판 해안이 전봇대로 더럽혀져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절의 안마당에 서 있는 2층짜리 종루(鍾樓)에는 윗층 추녀아래 「경요세계(瓊瑤世界)」라는 넉자의 한자가 잘 쓰여진 현판이 걸렸는데, 이것이 바로 그때 박안기가 적어놓고 간 것이다. 「낙원」 또는 「이상향」이란 뜻의 한자 표현이다.

이것 말고도 일본에는 박안기의 자취가 몇 가지는 더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강산현(岡山縣) 우창(牛窓)에 있는 본련사(本蓮寺)라는 절에는 그가 쓴 글씨로 만든 족자가 남아 있다는데 가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일본에서 귀국한 몇 달 뒤에 일본인 학자(坂出祥伸)가 나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그가 발견한 자료를 보내 주었다. 일본의 대표적 유학자 임나산(林羅山, 1583~657)이 박안기와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그의 문집에 남아 있는 것을 복사해 보내준 것이다.

이 대화기록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1643년 7월 그의 나이는 36살이었다는 것이다. 임나산은 그때 자기 나이는 61살이라 했으니, 박안기는 1608년생임을 알 수 있다. 임나산은 박안기가 약관에 과거에 급제한 진사(進士)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러 조선의 사신과 친했던 이 일본 학자는 그해에는 특히 박안기와 가까워져 그에게 편지 5통과 시 14수를 보냈다는 사실도 일본 학자의 연구에서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박안기는 그 당시 일본의 궁정화가 수야탐유(狩野探幽)에게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받고, 거기에 임나산의 글을 얹어 받아 기뻐했음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정보에도 불구하고, 박안기가 얼마나 당시 과학 또는 천문학에 능통한 과학자였던가를 밝힐 수는 없었다. 1643년 조선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에 갔던 박안기는 당시 일본의 최고수준 천문학자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삽천춘해는 일본인이 만든 일본에 맞는 최초의 역법이라는 「정향력」을 만들고 그것이 1684년에 채택되기에 이른다.

日에 최초로 曆法전수

여하튼 1608년에 태어난 나산(螺山) 박안기는 일본인에게 천문역산학의 한 수를 가르쳐준 우리 과학사에 길이 이름을 남긴 과학자임이 분명하다.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더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선 일본의 큼직한 책 모두에 잘못 기록된 그의 이름부터 바로 잡는 일이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일본인명대사전」 「일본역사대사전」 「국사대사전」 등 일본의 큰 사전류에는 모두 그의 이름이 「용나산」이라 되어 있으니 말이다.